

산학연정을 통한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연구

류 중 우*
김 호 권**

<요약>

인구소멸위기에 따른 지역대학과 지역 경기침체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라 생각된다. 특히 매년 1천여명 이상의 콘텐츠 관련학과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경산은 첨단과학 인프라와 디지털 콘텐츠 혁신의 최적지라 볼 수 있다.

경북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위해 주력업종인 제조업 등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의 융합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북지역 특히 경산은 10개 대학이 밀집되어 한강 이남에서 보기드문 학원도시이자 청년도시라 할 수 있다. 경산의 인구는 표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10대와 20대, 30대가 계속해서 줄고 40대 이상에서 인구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도시, 청년도시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발전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정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인력의 양성과 융합, 연계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경상북도와 더불어 경산지역이 학원도시에서 콘텐츠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구소멸, 디지털융합, 디지털콘텐츠, 융합콘텐츠, 산학연정

* 경북테크노파크 ICT융합산업센터장 ryujw@gbtp.or.kr

**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kingwon72@gmail.com

I. 서론

인구소멸위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고 수도권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도 인구소멸 위협에 대해서는 누구도 심각성에 대해 부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쉽게 풀기는 어려운 모양새이다. 다만 경북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융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고 있다. 지역대학들과 경북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청년인구 정주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경북 디지털 대전환 기본구상(23.05.)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조성 과 서비스 확산, 거버넌스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 경제, 사회 전 영역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경북의 생존전략을 설명하면서 부족한 산업 및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일상에서 체감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과제를 발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전략핵심 분야로 선정,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적 관점에서보면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콘텐츠 관련학과의 재학생 수 및 과목개설이 많고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기술원 및 경북글로벌게임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고 디지털 융합콘텐츠 관련 대학 및 기업의 수가 도내 가장 많이 집적화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들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감소하고 청년인력의 정주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디지털 융합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소멸위기와 경북

최근 6개월간 경북 지역의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청년인구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청년인구수가 전월대비 -2,287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1〉 최근 5개년도 경북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2.07	2022.08	2022.09	2022.10	2022.11	2022.12	전월대비
총인구	2,612,016	2,609,356	2,605,066	2,603,389	2,602,052	2,600,492	-1,560
생산가능인구	375,940	374,603	373,617	373,068	372,455	371,307	-1,148
청년인구	1,721,079	1,717,072	1,713,109	1,710,699	1,708,793	1,706,506	-2,28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경산시의 10년 동안 19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52,135명에서 39,836명으로 12,299명이 감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인구는 71,740에서 66,722명으로 5,018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40세부터 59세까지는 5,513명이 60세에서 79세 구간에서는 22,951명이 늘었다. 80세 이상에서는 표에는 없으나 13년 10월 현재 남자가 1,725명 여자가 3,997명으로 총 5,722명이었으나 23년 10월 현재 남자가 4,238명 여자가 8,317명으로 총 12,555명으로 6,833명이 늘었다. 이는 전체 인구수에서는 13년 248,863명에서 23년 266,843명으로 17,980명이 늘어나 도시가 인구증가의 면을 보이지만 실상은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와 중장년층의 폭발적 증가세에 있다. 예전 청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2〉 경산시 인구현황

(13.10 VS 23.10 현황)

연령	0세-19세			20세-39세			40세-59세			60세-79세		
성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3년 (명)	20,353	19,483	39,836	36,597	30,125	66,722	43,548	42,529	86,077	29,483	32,170	61,653
13년 (명)	27,438	24,697	52,135	37,903	34,647	71,740	41,049	39,515	80,564	17,422	21,280	38,70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재가공

기존 전통 산업의 쇠퇴에 따른 청년층의 유출 심화로 경상북도의 청년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계단식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경북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 0.857, 경산의 경우도 23년 0.495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역으로서 진입단계라고 볼 수 있다.

〈표 3〉 소멸위험지수 현황

전국 소멸위험지수				경북 지방소멸위험지수 (23년 예상)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2.473	충청북도	1.186	경산시	0.495	[소멸위험지수] 매우낮음(1.5이상) 보통(1.0~1.5미만) 주의(0.5~1.0미만) 소멸위험지역(진입단계) (0.2~0.5미만) 소멸위험지역(고위험) (~0.2미만)
경기도	1.816	부산광역시	1.111	구미시	0.627	
서울특별시	1.698	충청남도	1.109	포항시	0.289	
광주광역시	1.686	경상남도	1.101	안동시	0.324	
인천광역시	1.685	강원도	0.945	청송군	0.116	
대전광역시	1.684	전라북도	0.913	성주군	0.231	
울산광역시	1.641	경상북도	0.857	봉화군	0.122	
제주특별자치도	1.358	전라남도	0.783	영덕군	0.136	
대구광역시	1.317			의성군	0.095	

자료: 경상북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GB모아(www.gbdata.kr)

최근 5년간 경북 지역경제 현황은 지역 내 총생산 및 총부가가치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전국 대비 경북의 총생산 비중도 매년 감소,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2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최근 5개년도 경북 지역내 총생산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20 증가율
전국	1,840,349	1,902,528	1,927,421	1,944,644	2,083,793	7.2
경상북도	110,028	108,783	106,805	105,771	113,285	7.1
전국 대비 비중	6.0	5.7	5.5	5.4	5.4	-

주1: 총생산은 당해연도가격 기준

주2: 전국 대비 비중 = 해당 지역 총생산 / 전국 총생산 × 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지역내 총부가가치는 2021년 기준 경북 지역 내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의 연평균 증감률은 -1.4%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광업 비중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최근 5개년도 경북의 총부가가치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p)	연평균 증감률
전 산업 (비중)	103,801 (100)	102,629 (100)	100,542 (100)	99,069 (100)	105,803 (100)	0.5
농림어업/광업 (비중)	5,613 (5.4)	5,651 (5.5)	5,572 (5.5)	5,938 (6.0)	6,731 (6.4)	4.6
제조업 (비중)	49,410 (47.6)	47,689 (46.5)	44,031 (43.8)	41,869 (42.3)	46,744 (44.2)	-1.4
전기, 가스, 건설업 (비중)	9,269 (8.9)	8,204 (8.0)	8,336 (8.3)	8,649 (8.7)	7,552 (7.1)	-5.0
서비스업 (비중)	39,509 (38.1)	41,084 (40.0)	42,604 (42.4)	42,614 (43.0)	44,775 (42.3)	3.2

주1: 부가가치는 당해연도가격 기준

주2: 전기, 가스, 건설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45~96)

주3: 비중 = 해당 연도의 전체 총부가가치 중 업종별 총부가가치 비중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산은 청년인구의 감소와 인구감소위기가 공존하고 있으나 지역 내 총생산과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상북도의 디지털 정책의지

경상북도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SW인력의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디지털 분야(제조, IT, SW) 4천3백여 기업 5만여명의 인력 중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SW개발 인력은 2천6백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 IT/SW기업 실태조사,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23.03)

정보통신분야 기술기반 창업은 특히 청년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수준으로 21년 경북지역 정보통신업종 기술기반 청년창업기업 34개사 중 폐업한 기업이 23개사(67.6%)로 3개 중 2개 기업이 폐업하였다.(22 창업기업동향, 중소벤처기업부, 23.)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SW개발 기업 중 R&D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900개사에 불과하고 SW분야 자기 기술경쟁력을 최고 수준대비 83.6% 정도로 낮게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2022 IT/SW기업 실태조사,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23.03.)

경북의 디지털 정책업무가 분산되어 종합적, 체계적 추진이 어려웠으나 메타버스과 학국 내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과제를 발굴해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는 경제 진흥정책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목표로 메타버스정책관과 메타버스과학국을 신설하였으며, 인문과 디지털 융합, 메타버스 수도 조성을 위한 국비 17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경산을 비롯해 인근지역과 연계 협력해 성장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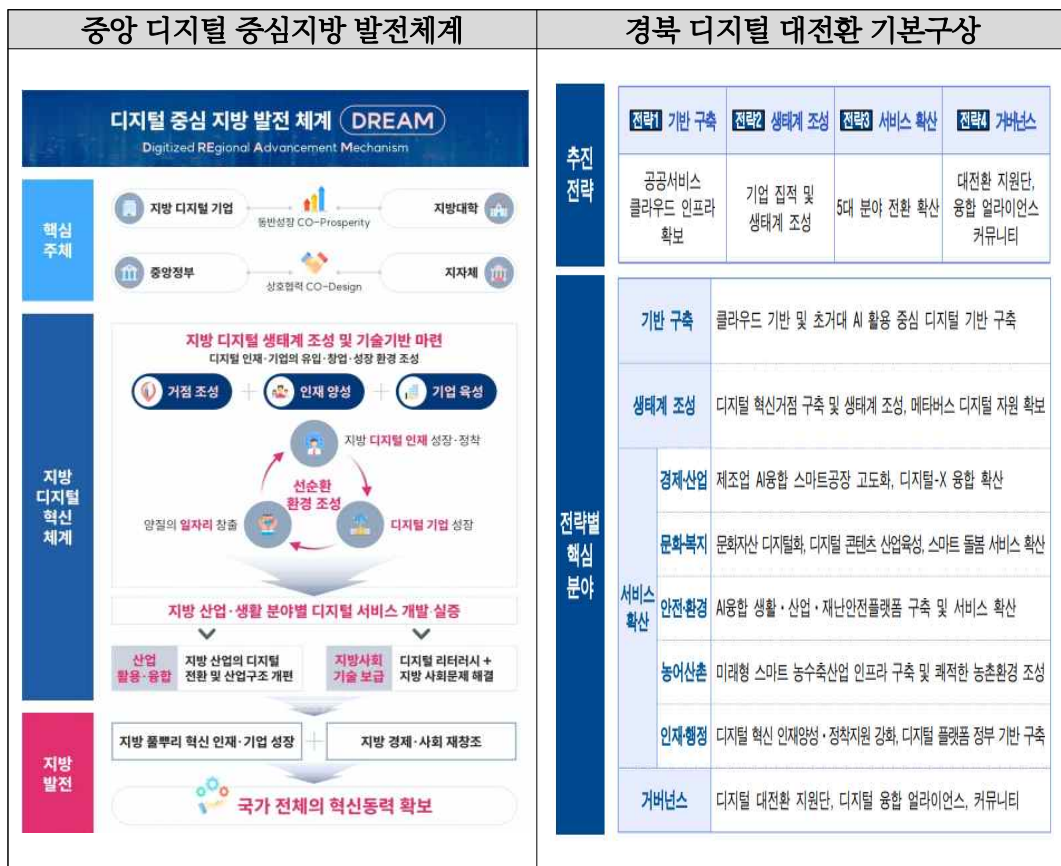
경북도는 디지털 전환 및 초거대 AI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첨단 기술융합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ICT.AI기반의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과 제조.농업분야 디지털 물류 선도모델 발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명소, 세계문화유산

집적 강점을 살린 문화유산자원 디지털화, 농업 디지털화, 생활안전망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임. 이를위해 다양한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이 경북도에서는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디지털 대전환 기본구상을 통해 기반구축, 생태계조성, 서비스확산 및 거버넌스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전략별 핵심사업에 대한 핵심사업을 진행할 예정.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과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디지털 발전체계 및 경북 디지털 구상 개념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3.11.01)

자료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23.05.)

3. 경상북도 경산시 : 디지털콘텐츠 혁신과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

현재 콘텐츠 산업은 디지털기기의 보급, 신기술(AI, XR, Big-data 등)발전, 소비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22)에서는 한국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를 1,469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 경산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지산학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을 하기 위한 최적지로서의 경산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매년 경북 경산지역의 주요 대학들은 사진영상전공, 게임콘텐츠학과, 애니메이션학부, 콘텐츠디자인과 등 다양한 콘텐츠학부에서 매년 1300명 이상의 융합인재가 배출되고 있다.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해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등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융합인재가 배출되고 있다.

[그림 2] 경산지역 주요콘텐츠 학과 관련 인재배출현황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사진영상전공, 이미지&테크놀로지전공 스마트보안학과, 게임콘텐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K-방송예술학부 건축디자인과, 콘텐츠디자인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시각디자인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산업디자인과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디지털디자인과 시빅데이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문화예술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시학 시각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1,298명	1,762명	1,536명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관련 학부(과) 편제 총 4,596명

매해 1,149명 융합인재 배출

자료 : 경일대학교(2023) “경북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안)”

경북지역에 게임콘텐츠 관련 분포는 경산, 경주, 성주, 포항, 구미, 김천, 칠곡, 안동, 의성 등 9개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음. 특히 경산은 게임기업이 27개사, 경산소재 관련 학과는 16개 학과, 관련기관으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IT융합기술원, 경산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이 소재하고 있다.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상은 지역의 강점을 파악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주와 지역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경북의 경우 지역대학에서 학습하면서 기업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지역소멸위기 감소와 지역발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표 6〉 경북 게임콘텐츠 관련 집적화 현황

지역	게임기업	관련학과	관련기관
경산	(주)뉴트로게임즈 등 26개사	경일대 게임콘텐츠학과 등 6개 대학 16개학과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경북IT융합기술원
안동	(주)해피스케치 등 4개사	안동대학교 디지털ICT공학과 등 3개학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의성	-	경북소프트웨어고	-
구미	(주)만철소프트 등 6개사	구미대 비주얼게임콘텐츠스쿨 등 3개 대학 7개학과	-
김천	(주)넵블게임즈 등 4개사	김천대 IT융복합공학과	-
칠곡	CK	대구예술대 게임웹툰전공 등 2개학과	-
경주	-	경주대 융복합시각예술디자인학과 등 3개대 3개학과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포항	원소프트다임 등 2개사	포항공대 IT융합공학과 등 3개대 5개학과	경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자료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자체조사(23.06.)

매년 배출되는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게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들이 지역기업과 함께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지역유치를 통해 융합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들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민하는 것은 역시 인재의 지속적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이 경북 경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디지털콘텐츠 기업과 지역 주력사업인 첨단디지털부품, 라이프케어소재, 신소재부품가공 산업 및 이차전지 시스템 산업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기술을 활용, 콘텐츠개발 및 교육의 거점화로 산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고, 미래기술인 AI, Big Data 등을 활용, 기업인력에 대한 미래기술 전문교육과 대학 연구소와 연계해 미래기술 관련 융합콘텐츠를 확장,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기업은 민간주도로 콘텐츠기술의 디지털 가속화 뿐 만 아니라 제조·서비스업·농축수산업 등의 산업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성장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부분에서는 재난대응, 생활편의, 돌봄, 인재 양성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복지제공으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부분에서는 디지털 핵심 인프라(Data, Cloud, AI) 확보로 기존 산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II. 디지털융합콘텐츠 클러스터

1. 필요성에 대한 논의

경북 경산시는 에콜42 등 유치사업과 연계하여 SW, 디지털콘텐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정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융합콘텐츠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특성화를 통한 입시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 인력난 해소와 제작비 절감 등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지역으로의 리쇼어링 및 토착화를 유도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에게 다양한 실무에 참여시키고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사업운영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는 경상북도, 경산시와 함께 사업총괄을 담당하며, 경북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관리지침 수립·운영과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평가, 상시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지역 대학들의 콘텐츠 학부를 중심으로 연합, 콘텐츠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지자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클러스터를 구축,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인력에 대한 지역 정주여건을 강화시켜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경북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운영체제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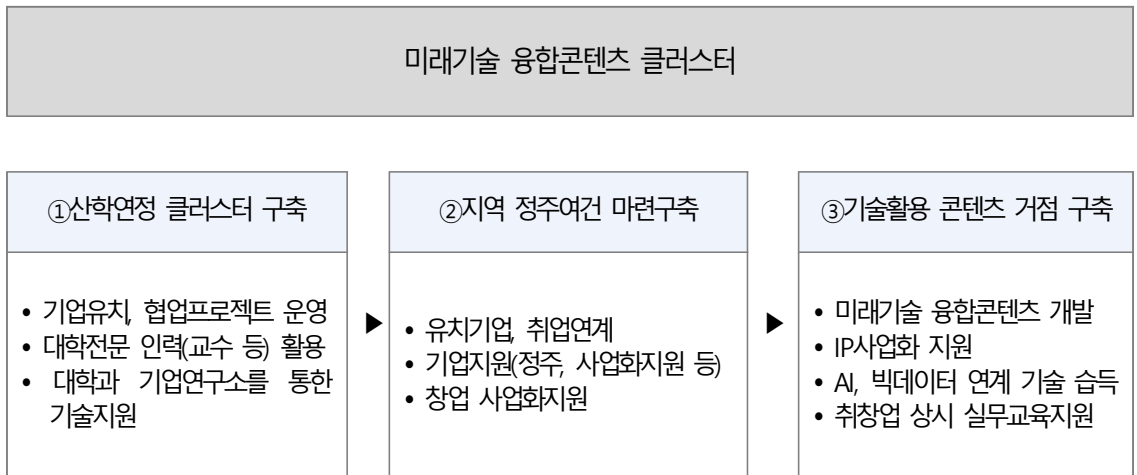
자료 : 경일대학교(2023) “경북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안)”

이와 함께 IP사업화와 창업지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콘텐츠 융합인재육성을 위해 특성화교육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연계 지역정주화와 창업여건을 개선해 콘텐츠 융합 기술을 통한 지역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운영 세부내용

여기에서 융합콘텐츠란 기존 웹툰, 게임 등을 AR, VR, VFX 등 다양한 미래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중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7]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중점방향



자료 : 경일대학교(2023) “경북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안)”

① 산학연정 클러스터 구축

대학 내 기업유치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에 인력, 공간, 장비, 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 내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위해 산학연정 클러스터 거버넌스와 전담 운영조직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기업입주 공간, 기업협업형 콘텐츠 제작실, 학생창업 공간 및 교육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과 대학 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경쟁력 있는 제작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국내기업의 해외 외주 용역을 대학 거점형 클러스터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실무교육과 기업의 자연스러운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춰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주요 수도권기업의 유치와 여러 학회 중심의 활동을 이곳 경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클러스터 기업을 설립하여 교수·학생이 참여하고 기업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산학협력 중심기업인 영리법인형 클러스터 기업의 설립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클러스터 기업은 유치기업과 지역기업, 지자체 간의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지역강소 기업으로 육성하여 학생들의 실무교육, 취업, 창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토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통해 유치기업의 리쇼어링 프로젝트 외주용역을 통한 수익모델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는 일학습 병행과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지역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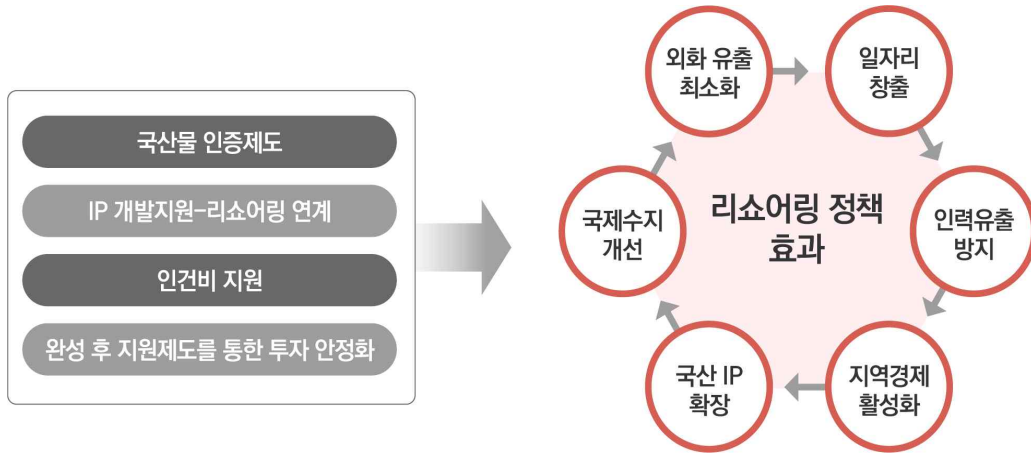
여기에는 전문 교수인력의 자유로운 프로젝트 진행과 참여 및 보상이 필요하며 학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지원하여 역량강화와 함께 창업기업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참여인력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구축

외부 유입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웹툰, 웹소설, 게임,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 VFX, 영상콘텐츠 유치기업들의 지역 토착화를 위한 지역정주 인건비 지원이나 회사 이전에 따른 지원 즉 경북에 전입 및 지역에서 일할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기업이 지역 대학 졸업생을 고용시 지역 정주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4] 리쇼어링 정책의 필요성



자료 : 경일대학교(2023) “경북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안)”

③ 기술활용 콘텐츠 거점구축

미래기술(AI, Big-Data, XR) 융합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성형 AI 콘텐츠 개발의 경우 생성형 AI로 제작하는 웹툰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지원과 웹툰 스튜디오 및 에이전시의 AI 웹툰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지원, AI 웹툰 제작에 필요한 교육지원 그리고 생성형 AI로 제작하는 chatGPT 웹소설 개발, 교육 및 제작지원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지원을 위해 AR, VR, MR, XR, 디지털 휴먼과 같은 실감콘텐츠 개발 교육과 제작지원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미래기술 융합 IP를 적극 개발, 발굴하여 미래 콘텐츠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래먹거리로써 융합콘텐츠형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콘텐츠 등의 IP 개발, 교육 및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

IP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사업화지원 이를테면 육성프로그램이나 협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지역정주를 위한 콘텐츠 페스티벌로 산학연정(産學硏政)이 참여하여 취·창업박람회, 창업 전문가 특강, 콘텐츠 전시회,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이 청년들이 모이

는 융합콘텐츠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융합콘텐츠 기반의 학생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대구·경북권 예비창업자의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창업아이템 발굴과 학생들의 조기 창업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내 창업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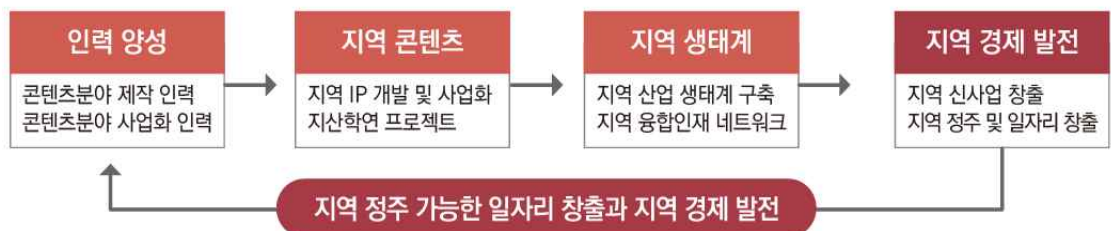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콘텐츠 개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산학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이디어 도출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는 멘토링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화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콘텐츠 창업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강연과 멘토링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전문가란 단순 기술적 전문가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업가, 역사학자, 지식재산권 전문가, 문화전문가, 인문학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미래 융합콘텐츠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보여진다.

이밖에도 다양한 대학 내 창업 관련 정보를 결집, 체계적인 창업 안내 및 지원과 원스톱 지원창구를 통한 콘텐츠 발굴 및 예비창업자의 문제해결 및 지원이 필요하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멸위기, 청년정주방안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명제에 대해 지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은 인력양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역소멸과 지역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미래기술에 대한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융합콘텐츠를 살려나가고 여기에 지역산업 생태계를 구축,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이 정주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전문인력의 유입과 지역에 맞는 생태계 조성 효과

미래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조성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인력 유입과 이들을 통한 전문인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상북도 경산에서의 융합콘텐츠 클러스터가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규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고도화, 인력 간 교류 등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클러스터 내 조성되어 있는 교육공간과 산학 협업체제는 콘텐츠산업이 가지고 있는 도제식 교육방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구조로써 지역 클러스터 차원에서 이들을 유입하여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긍정적 효과 유발이 기대된다.

2. 일자리 창출 효과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다양한 관련 기업과 인력의 유입은 클러스터 내·외부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K콘텐츠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과 함께 클러스터는 일자리창출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콘텐츠산업 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도, 20-30대 인력들이 중심이 되는 콘텐츠산업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력의 유입과 일자리 기반의 마련, 이로 인한 전문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가 확산되며, 지방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청년들에게는 전문분야에서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지역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우수한 일자리와 생활편의, 적절한 임금과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지역이 매력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최적지가 경산이라고 본다.

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향후 이들의 작업 및 사업화 과정에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클러스터는 지역활성화 및 지역생태계의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경일대학교(2023), “경북 미래기술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계획서.”
- 경상북도(2023), “202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3), “인구현황 및 지역소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11.), “디지털 중심지방 발전체계”
- 경상북도(2023.05.), “경북 디지털 대전환 기본구상”
- 경북테크노파크(2023.06.), 경상북도 콘텐츠 관련 기관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22), “한국콘텐츠산업 시장규모,”
-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2023.03), “2022 IT/SW기업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2년 창업기업동향,”

A Study on the Convergence Contents Cluster

Ryu, Jong-Woo(GyeongbukTechnopark, Head of Center)

Kim, Ho-Kwon(KyeongIl University, Professor)

The situation of university and regional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crisis of population extinction continues. In order to overcome this,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considered essential.

In particular, Gyeongsan has well-established high-tech infrastructures such as Gyeongbuk TechnoPark, Gyeongbuk IT Convergence Technology Institute, Gyeongbuk Global Game Center and more than 1,000 graduates of content-related departments are produced every year. It is thought to be the best place for digital convergence content.

Gyeongbuk needs to foster the convergence content industry along with the manufacturing industry. Gyeongsangbuk-do, especially Gyeongsan is an academy city where 10 universities are concentrated.

Gyeongsan's population appears to be increasing on the surface, but in reality, the number of teenagers, people in their 20s, and 30s continues to decline, and the population growth is increasing among those in their 40s and older. Therefore, From now on, we have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nvergence content cluster in connection with Industry University Reserch Institutes and Loc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a convergence content cluster can contribute to human resources training, creating an ecosystem and regional revitalization.

Key words: Population extinction, digital convergence, digital content, convergence content, Collaboration among Industry University Reserch Institutes and Local Government